

화려한 싱글 위한 '미니 기기'들, 여기 모여라

김진 기자

<경제> 2010.03.11

홍익대 부근에서 혼자 사는 미혼의 강민영(32)씨는 10여평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지만 퇴근한 뒤 직접 구운 쿠키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긴다. 이처럼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와 싱글족들을 위한 '미니 기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크기가 작아진 데서 나아가 싱글족 등에 유용한 기능과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작은 집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좁은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를 놓기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는 작은 사이즈의 미니노트북과 넷북이 제격이다. 넷북보다 작아 '핸탑(hand-top)'이라 불리는 빌립의 7인치 미니 노트북 'S7'은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LCD를 뒤로 돌려 접어 영화와 드라마 등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닮은 원형 스타일에 야구공만한 크기의 미니스피커 플레오맥스 '오데온 S-260'은 고성능 디지털 앰프를 사용해 좋은 음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소니의 'DPP-FP97 포토프린터'는 18×6.7×13.7cm(가로×두께×세로)의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좁은 원룸에 놓기에 적당하다.

미니프로젝트로 영화를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다. 147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엔모투의 '모투뷰 NPP-1'은 PC 속 자료를 60인치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 IT기기와 연결해 좁은 공간에서도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

혼자 먹는 한 끼라도 정성을 다해 요리할 수 있는 미니 주방기기들도 눈길을 끈다. 필립스전자의 파워미니오븐기 'HD4496'은 최대 23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간단한 데우기부터 빵 굽기, 각종 구이요리가 가능하다. 바쁜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동전원차단 기능도 장점이다. 매일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먹기 힘든 싱글족을 위한 미니정수기도 인기다. 웅진코웨이 미니정수기 'P-07CL'은 기존 정수기보다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좁은 부엌이나 원룸에 설치하기 좋다. 깊은 맛의 커피 한 잔은 요즘 세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여유.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머신인 '밀레 CVA3650ST'는 커피머신 상·하단에 푸른빛의 실내 LED 조명등이 장착돼 카페 같은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다.

대우일렉의 최소형 드럼세탁기 '클라세(모델명 DWD-700WN)'는 기존 드럼세탁기에 비해 크기를 최대 60% 이상 줄였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 깊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싱글족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무게를 7kg으로 반 이상 줄여 세탁 시 물의 사용량과 전력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블랙앤드데커의 핸디형 무선 청소기 '플렉시'는 1.8kg의 작은 크기에 완전히 충전한 뒤 12분 동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